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보도참고자료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과장(2110-5611), 오주철 사무관(2110-5643)

윤상직 장관, 취임이후 첫 지역 현장행보 광주에서

- 광주 광산업 업계 현장 방문 및 지역산업발전 방안 논의 -

☐ 4월 25일(목),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장관은 취임 이후 첫 지방 현장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했다.

○ 광주 지역산업인 광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오이솔루션을 방문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손톱 밑 가시는 없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,

○ '광주전남 혁신도시(나주)와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' 방안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.

☐ 윤상직 장관은 광주 지역산업인 광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오이솔루션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점검하면서, 지역 기업이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오이솔루션은 광통신 네트워크의 신호입출력 부품(이하 트랜시버)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(약 40%), 세계 10위권 인지도('12년 Optical Fiber Conference)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.

- '04년 매출 1억원에서 '12년 667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, 매출의 약 50%을 미국, 유럽 등에 수출하는 지역의 수출기업으로 12년 World-class 300에 선정되었다.

○ 오이솔루션은 산업부 지역사업인 전략산업육성사업의 창업보육센터 도움으로 2003년 창업하였다. 이후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'09년 세계 2번째로 초소형 트랜시버를 개발하였고, '12년 세계 최초의 스마트 트랜시버를 개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.

○ 또한,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부품기업간 연계사업인 GP(글로벌 파트너십) 사업에 '10년부터 참여하여 세계적 통신기업인 알카텔-루슨트사와 MOU를 체결('12.4)하고

- 100메가용 트랜시버를 개발하는 공동 R&D를 진행하고 있으며, 금년 상반기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하여 알카텔-루슨트사에 공급할 계획이다.

○ 현장을 둘러본 후, 윤장관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산업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☐ 이어서, 광기술원에서 개최된 나주혁신도시 간담회에서는 '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'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이 자리에서 전남(나주시)은 나주혁신도시 조성계획을 설명하였고,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, 한전 KDN, 우정사업센터는 지역인재 양성·고용 계획을 밝혔다.

- 특히, 한국전력공사는 나주 동신대학과 인력양성협력을 맺었고, 지역 대학과 전력, IT 분야에 대해 공동 R&D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함께 에너지·전력산업을 육성에 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윤상직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업에 대해 입지,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설명하며,

- 향후에도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.

☐ 또한, 윤상직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간 김동철의원(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)이 제기했던 광주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민원을 청취하고,

○ "정부는 '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지침 제정', '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' 등 외투지역 제도를 개선하였고, 현재는 광주시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, 가급적 이른 시일에 입주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"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오주철 사무관(☎ 02-2110-56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